

## \* 등급정보 (계란) \*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2천667만7천개에 대하여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83.0%, 1등급 14.9%, 2등급 0.8%, 3등급은 1.3%를 차지하였고, 전월대비 260만9천개(8.9%) 감소, 전년동기(19개 업체) 4,268천개(19%) 증가, 금월누계는 2억1천509만3천개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3천472만3천개(19.3%)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8년 1~7월	215,093	189,419	85.7	27,891	13.0	1,117	0.5	1,666	0.8
'08년 7월	29,286	23,707	80.9	5,023	17.2	209	0.7	347	1.2
<b>'08년 8월</b>	<b>26,677</b>	<b>22,146</b>	<b>83.0</b>	<b>3,971</b>	<b>14.9</b>	<b>225</b>	<b>0.8</b>	<b>336</b>	<b>1.3</b>
일반	363	187	51.3	30	8.2	-	-	147	40.4
특별	18,597	15,281	82.2	2,923	15.7	204	1.1	189	1.0
대란	7,685	6,667	86.8	999	13.0	19	0.2	-	-
중란	32	11	33.8	19	59.2	2	7.0	-	-
소란	-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 양계협 채란분과위, '채란업 대응전략' 토론회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지난 8월 29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레전드 호텔에서 산란계 발전을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위기에 처한 채란업 대응전략 토론회'란 주제로 열리며 농식품부 관계자가 채란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설명과 위기에 처한 채란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란실용계 수급 조정방안 모색과 산란계자조금사업 확대추진방안, 계란유통구조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 계란, 유방암 위험 낮춰

계란 섭취와 유방암 위험 저하의 관련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스티븐 지셀(Steven H. Zeisel) 박사팀은 계란에 든 필수영양소인 콜린이 유방암위험을 24% 낮춘다고 미국 실험생물학회 학술지 FASEB Journal(2008;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성인 여성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조연구 한 이 연구는 콜린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군에서는 가장 적은 군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학연구소(IOM)에서 밝힌 콜린의 하루 권장량이 남성과 수유 여성의 경우 550mg, 일반 여성 425mg, 임산부 450mg. 계란 1개에 들어있는 콜린량은 125.5mg으로 하루 추천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란은 매우 뛰어난 콜린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콜린은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으며 간, 맥아, 콜리플라워 등에도 들어있다.